

아침 '쌀쌀' 낮은 '더위' 10월 14일 (음 8월 23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13~25℃
목포	14~25℃
여수	17~24℃
전주	15~26℃
대구	12~27℃
대전	11~26℃
충주	10~26℃
청주	13~26℃
서울	10~27℃
인천	12~26℃
부산	12~26℃
제주	12~26℃
영남권	8~26℃
영동권	11~25℃

서해남부 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0.5~1.0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해돋이 06:37 ▲해질 17:59
▲달돋이 23:49 ▲달질 14:05

목포 밀물<06:49 썰물<00:35 여수 밀물<01:14 썰물<15:27
20:12 12:14 08:08 23:02

◇주간 날씨 기상안내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5	14/25	14/24	12/24	13/24	13/23

‘완도 괴물’ 멧돼지 잡았다

보통 돼지의 3배 210kg ... 염소 잡아먹는 현장서 사살

주민들 “진짜 괴물 안잡혔다” 여전히 불안

완도 생일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괴물(?)이 마침내 붙잡혔다. 잡힌 괴물은 200kg이 넘는 거대한 멧돼지였다. 이 멧돼지는 염소를 잡아먹던 중 현장에서 전문 염사의 총을 맞고 숨졌다. 지난 11일 밤 완도군 생일면 유촌리 괴물 포획에 나선 한국야생동물보호

협회 완도지부 소속 정대광(40·사냥경력 20년), 박준일(52·사냥경력 12년)씨 눈에 검은 물체가 포착됐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으며 조금씩 앞으로 접근했다. 멧돼지였다. 당장 방아쇠를 당겨 쓰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멧돼지가 있는 곳은 160m 앞. 사거리 50m의 염총으로는 닿지 않은 거리다.

서치라이트(searchlight·탐조등)를 비추자 촌살같이 산으로 달아났다. 이날은 잡적했던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에만 만족했다.

“우~웅” 12일 밤 10시20분쯤, 염사 박씨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염소가 시끄럽게 울어. 이 시간에 이렇게 울리

기 마는 주민의 전화였다. 어제 멧돼지를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다. 주변에서 탐색을 하던 정씨와 박씨는 차를 타고 야산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염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치!” 깜깜한 밤하늘을 가르는 서치라이트가 그곳을 비쳤다.

그놈이었다. 무려 350근(210kg)짜리 멧돼지는 흑염소를 잡아먹고 있었다. 먹는데 정신이 팔렸는지 재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정씨는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첫발은 목 뒤에 맞았다. 놀란 멧돼지가 비틀거리며 산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탕~탕~” 이어 온 2발은 멧돼지 심장에 그대로 박혔다. 그때서야 거대한 멧돼지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정씨는 “보통 집에서 기르는 돼지보다 3배 정도 크며 이렇게 큰 멧돼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괴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생일도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그동안 텃밭 등에 낚은 발자국을 보면 비슷한 크기의 멧돼지가 아직 3~4마리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뼈까지 잘게 씹어먹는 것으로 미뤄 멧돼지가 아닐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괴물은 발톱이 매우 날카로운 ‘살랭이’나 야행성인 ‘너구리’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진짜 괴물은 어딘가에서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완도에서 가장 작은 섬인 생일도는 464가구에 916명이 살고 있으며, 48가구에서 900여 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있다.



사살된 ‘괴물’ 12일 밤 완도군 생일도에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괴물’을 사살한 염사 박준일(사진 왼쪽)·정대광 씨가 멧돼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쪽 동물은 멧돼지가 잡아먹던 흑염소.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나원침



Cartier
1.062-360-1340
(광주신세계 2층)

방광선도시와 운전특과를
통과하는 3.6% 혜택당첨!
수험선도시 피오래
문의: 062-367-9000

불합격 승강기 운행

안전사고 위험 노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수검 상태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가 상당수에 달해 국민이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원호 소속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미수검 상태로 있는 승강기가 총 3천9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이후 발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승강기도 693건에 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인 의원 ‘돌발영상’ 소송 패소

“국회에서 ‘막말’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뉴스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의원이 YTN과 디지털YTN,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임 의원은 YTN이 6월20일 국회에서 자신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른바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자 “동의 없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8월 제기.

○임 의원은 “YTN은 인터넷 홈페이지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상 삭제하라”며 영상물제작금지 가져본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7월 중순 “인론은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소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광주 철수

1년 11개월만에 ‘고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했던 주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13일 ‘고별식’을 갖고 1년 11개월 만에 광주에서 철수했다.

고별식은 영상물 상영, 한·미 양국 국가 연주, 부대 활동보고, 기념사 및 포상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데

데이비드 벨코트 미8군 사령관과 존 로시 35방공포여단장, 이봉원 31사단장, 이병화 광주시 정무부시장, 박영철 한미우호협회 지회장 등 군·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벨코트 미8군 사령관은 고별식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광주에 머물면서 따뜻한

하했다”고 말했다.

부대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III’ 16기와 450여 명의 미 8군 방공 여단 방공대대 소속 부대원은 두세 달 안에 경북 왜관 미군부대 ‘캠프 캐롤’로 이전한다.

주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는 지난 2004년 11월30일부터 광주에 주둔했다.

한편 국내 반전단체·대학생·노동자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부대 정문 앞에서 부대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주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광주 공군 기지에서 열린 ‘고별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고교생 1만61명 수업료 못냈다

전국서 2번째로 많아

전남지역 학생들 중 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이 1만61명으로 경기지역(1만8천13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전체 학생 176만명 중 6만5천435명, 미납액은 183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

다. 지난해 말 기준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1만8천137명(미납액 78억여원)이었다.

미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 278명(미납액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만61명(19억원), 인천이 7천 548명(29억원), 경북이 7천46명(15억원) 순이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 미납자는 3만7천678명(미납액 109억원), 실업계 미납자는 2만7천577명(미납액 74

억원)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많은 것은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학기 때 미납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 학년 말에는 미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급식비를 연체한 초·중·고교생은 올 3월 기준으로 2만2천570명에 달했고 미납액은 3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일교차 최고 15도 가을 가뭄 ‘극심’

주말·휴일 나들이엔 좋은 날씨

지난 10여 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낮에는 최고 22~27도 까지 올라 다소 후텁지근하다.

10월 들어 두 번째 맞는 주말과 휴일 날씨도 이와 비슷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4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다”고 13일 예보했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새벽 한 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다. 지역에 따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된다.

휴일인 15일도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하기 좋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에는 최고 25도까지 오르겠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올 단풍 곱다고?

가뭄에 나뭇잎 말라 등산객 실망

심각한 가을가뭄 때문에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커 올해 단풍이 유달리 곱을 것이라던 기상청 예보와 달리, 전국 유명산의 나뭇잎들이 심하게 말라가고 있다.

강원도 설악산의 경우 많은 나무의 잎들이 말아 오그라들고 부서지는가 하면 그나마 물이 든 단풍도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해발 1천708m 대청봉 정상에서 시작으로 물결기 시작한 단풍은 현재 해발 700m까지 내려왔지만 대청봉에서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잎마름 현상이 더욱 심해 많은 등산객들이 기대만 못한 풍경을 실망하고 있다.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도 천황봉과 문장대 부근의 단풍이 제대로 물들지 않고 잎이 누렇게 말라 떨어지거나 타들어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성주환 박사는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생리활동이 진행돼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 수 있는데 올해는 가을가뭄이 심해 나무에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올 가을 강수량은 평균 13.7%~45.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상청 응용기상연구실 김현애 주임은 “평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강수량과 최근 지나치게 높은 낮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풍이 예상처럼 곱지 못한 것 같다”며 “아직 단풍이 시작되지 않은 남부지방의 경우 강수가 제공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